

실천하는 신앙생활 (Kitchner 한인성당 특강)

이현하 부제 Aug. 30, 2009

찬미 예수님,

몇 년전의 일입니다. 토론토 가톨릭 교육청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교사로 채용했다고 크게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 미사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 이혼한 사람과 결혼한 사람, 결혼 전에 동거한 사람들을 선생으로 채용해서는 안 된다는 측과 그런 조건들이 학생을 가르치는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측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나는 가끔 가톨릭 신자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나 자신이 떳떳하게 ‘가톨릭 신자다’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신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는 교리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번도 예수님은, “이것, 이것만 하면 너는 가톨릭 신자의 본분을 다 하는 것이다”라고 하신 적이 없고, “네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고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신앙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신앙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지인 하늘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예수님 따르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솔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분은 양떼를 이끌듯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했는데 무엇을 믿는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가 사흘만에 부활하셨다는 것과 지금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의 누가 복음 19장에 보면 사회에서 지탄 받는 자케오라는 죄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회개하고 결국 그와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는 기쁜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 줍니다. 이 복음서에서 자케오가 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케오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곳에 갔습니다. 자케오는 키가 작아서 가로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볼 수 있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현세를 사는 우리는 너무도 바쁜 생활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허둥지둥 아침을 먹는 등, 마는 등, 직장 에 나가 바쁜 시간을 보내고 피곤해서 집에 돌아오면 신앙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시간을 보내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로서 우선 신앙생활을 위해 얼마만큼 의 시간을 봉헌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하루는 24시간이고 일주일은 7일입니다. 일주일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168 시간이 됩니다. 거기서 일하는 시간을 50시간으로 잡고, 잠자는 시간 56시간을 뺀다면, 남는 시간은 62시간입니다. 이 62시간에 TV 보는 시간, 인터넷 하는 시간, 운동 하는 시간, 친구 만나는 시간, 내 신앙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을 위해서 바치는 시간이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하느님이 안식일에 쉬신 것을 생각해서 7분의 1을 신앙생활에 바친다면 일주일에 약 9시간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주일미사 참여,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 자선활동에 보낸 시간을 이 9시간에서 할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느님께 바쳐야 할 시간을 내 개인 목적으로 쓰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로서 최소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일까요?

1. 신앙생활에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기도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하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는 하느님과 어떤 대화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느님께 자기 이야기만하고 하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지 않은 채 대화를 끝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대화이고 독백입니다.

신앙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대화가 없이는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대화 없는 부부 생활이 유지될 수 없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슬람교도들은 세계 어디에 살고 있든지 하루에 5번씩 성지인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 생활을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신앙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묵시록 3장에는 “들어라,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은 우리와 대화 하시려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문을 열어 드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두드리는 소리를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먼저 침묵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침묵이고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때 진정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중국의 노자는, “인간은 들으면서 성장하는데 첫째, 다른 사람의 말을 귀로 듣는 일차적 들음이 있고 둘째, 자기 안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데 그것은 모름지기 양심의 소리, 자기 소리를 스스로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소리는 초월한, 저~쪽으로부터 오는 소리,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귀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리 없는 소리, 그것은 풀 포기에서 듣는 소리, 산과 강과 하늘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아무 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질 때 우리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으며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느님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기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분심이 들어 기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분심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분심은 기도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기본적인 시련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속 기도하면 마음의 평화가 깃들게 되고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이신데 왜 인간이 졸라대야만 마지못해 들어주시는지 의심이 가지요? 그러나 그 것은 하느님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베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변화되어 하느님이 원하시는 길로 들어서야 하느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자기중심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좀더 크게 내다보고 내 공동체를 위해서, 전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 신앙생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랑을 베푸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른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그 사랑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많은 율법학자가 그의 제자들을 불러 놓고, “언제를 새벽이 왔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한 제자는 멀리 있는 짐승이 개인지, 양인지를 분간 할 수 있을 때라고 대답했고, 다른 제자는 멀리 있는 나무를 보고 그 나무가 무화과인지, 배나무인지를 알 수 있을 때라고 대답하자 율법학자는 다 틀렸다고 했

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하여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율법학자가 “너희들이, 사람을 보고 그들이 모두 너희들의 형제, 자매로 보일 때 진정으로 새벽이 온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도 한 밤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심장한 대답은 내 이웃을 보고 내형제 자매로 생각되지 않을 때, 우리는 아직도 암흑세계에서 헤매고 있다는 뜻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길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보았을 때, 병원에서 신음하는 환자를 방문했을 때, 또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는 흑인을 만났을 때, 그들을 내 형제, 자매로 볼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많은 경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형제자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불쌍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예수님 자신으로 보아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 주었는지를 가지고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불쌍하고 소외 받은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계실 때 버림받고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기회 있을 때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행동으로 도우라고 가르치시고 몸소 이를 실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 이웃을 위하여 일하려고 뽑힌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들이 내 이웃을 내 가족처럼 사랑할 때 하느님의 왕국은 우리에게 좀더 가까이 올 것이고, 그날에 예수님은 영광에 쌓여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작은 일이라도 소외된 내 이웃을 도우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돕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크리스천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잠깐 끝나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입니다.

3. 신앙 생활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 혼자만 선을 행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간다는 말이고 신앙생활은 살아서 활동하는 공동체 생활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매일 우리 직장과 가정,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열심히한 신자가 있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기도와 성경 묵상을 하면서 지냈지만 별로 신앙 공동체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서 천당 문 앞에 갇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의아해하며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천당에 들어가려고 왔으니 문 좀 열어달라고 했더니 단체 입장만 받지 개인 입장은 사절한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스개 소리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가는 것이지 개인의 성화만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지금까지 신앙을 하느님과 나만의 관계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나? 반성해 봅시다.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하느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이웃과의 일치가 없이는 하느님과 일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려면 본당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당(Parish)이란 무슨 뜻입니까? 본당은 교구에서 정해 놓은 지역 내에 사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가르쳐 말합니다. 이 공동체는 하느님의 백성으로, 함께 하느님을 예배하고, 하느님께 기도드리며, 신자들 간에 서로 도우며, 외부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느님을 믿게 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자들이 계속해서 재교육을 받아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교회 차원에서 남에게 봉사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레지오라든가, 전례부라든가, 성령기도회라든가, 성가대라든가, 주일학교라든가, 성모회라든가, 부서를 찾아가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봉사하도록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가 각자의 소명을 따를 때 하느님은 당신의 일을 세상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앙생활에서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반성하는 생활입니다.

매주 미사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고 내 이웃들과 친교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교회에서 말하는 신자로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반성하며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의 가르침 가운데는 크리스찬으로서 알고 실천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꼭 지켜야 할 것은 자기 수입에 맞는 헌금을 내고, 교회와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 활동을 하고, 책임 맡은 일에 충실하고, 교회의 윤리 규정에 맞는 생활을 하도록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천하는 가톨릭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충실히 알고 있는지 자녀들과 함께 기도 생활을 권하며 사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첫 번째 교리 교사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첫영성체, 첫고백, 견진등 나이에 따라 있는 성

사를 제 나이에 맞게 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언제 그런 성사를 주는지, 언제부터 준비를 시키는지 알려고 해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가톨릭 신자들은 전교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였고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전교는 신자들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도 “선교야 말로 우리 인간이 하느님께 할 수 있는 최대의 봉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제일 좋은 신앙을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권하는 것은 신자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세상에 있을 때 몇 사람이나 전교했느냐고 물으시면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준비 해야겠습니까?

현대 복음 선교 15항에는, “복음 선교에 있어서 교회로써 참신한 활력과 힘을 보유하려면 교회 자신이 언제나 복음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누구입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심으로 무장되어야겠습니다.

또한 현대 복음 선교 44항에는 “복음 선교의 다른 하나로써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교리 교육이다.”라고 했습니다. 교리 교육은 예비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세례 받은 신자들에게도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직접 교리 교육을 받을 것은 물론 교회의 서적이나, 신문, 잡지를 통해 교리 지식을 넓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에게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 될 때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조 순교자들의 용감한 복음 전파의 삶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대건 성인을 대표로 하는 한국 순교 성인들은 교리뿐만 아니라 삶으로써 선교를 했던 분들입니다. 당시 천주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교를 했습니다. 그 후손인 우리도 그분들의 발 끝 만치라도 따라 가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교는 세상을 바로 잡는 길이며 오염된 우리 환경을 밝은 사회, 사랑의 사회로 바꾸는 일입니다. 전교야 말로 신자의 도리이며 바로 신앙을 키우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가두 선교에 나서는 신자들이 하나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무관심했던 교우들이 전교 활동으로 그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걱정하고, 관심을 갖는 모습으로 바뀌어 진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경험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생활, 사랑을 베푸는 생활, 공동체적인 삶, 반성하는 삶, 전교, 어느 것 하나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강론이나 피정, 특강 등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내용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에 대한 열정이 생겨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행동으로 실천하며 사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삶과 믿음은 하나이어야 합니다. 내 삶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행동으로 실천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은총을 구합시다. 아멘.